

계속되는 의대생 수업거부... 금주부터 대학 유급절차 돌입

고려대, 120여명 유급처리 전망
연세대, 오늘 최종 유급처분 방침
교육부 '복귀 시 정원동결' 제안에도
의대생,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요구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의과대학 본과생들의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에서 본과 고학년 유급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뉴시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번주대거 유급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는 학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또한 시기적으로 내년 모집 정원과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의 수업 복귀 독려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번주 대학들이 속속 의대생 유급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고려대는 이날 재학생 유급 시한에 도래하면서 의과대학생을 원칙에 따라

유급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려대는 학생이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면 이들을 유급한다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본과 3~4학년 120여 명은 유급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호성 고려대 의무기획처장은 "예정대로 유급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대 학생과 관련해선 의대 학장단에 일일이 돼 있는데, 원칙대로 유급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로 15일 유급예정정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도 무단결석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

칙에 의해 제적된다고 안내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유급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마다 학칙이 다르지만, 대부분 의대는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고 유급 처분한다. 유급이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 누적되면 제적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수업 정상화와 의대 모집인원 축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음에도, 상당수 학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함께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라며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및 2026학년도 모집인원 확정 문제가 시기가 함께 논의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 의료패키지 협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시점은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대변인은 "전국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은 이달말까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5월 31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이후 변경은 불가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장학재단, 6억 규모 'AI 석사장학금' 신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신입생 60명에 1인당 1000만원
우수인재 발굴·육성 선순환 구조 기대

서울장학재단이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AI 분야 이공계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1000만원씩, 총 6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장학금은 이공계 석사과정 신입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전략의 핵심인 인재 양성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AI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며, AI 기반 기술연구 분야에서 전체 정원의 80% 내외, AI 응용기술 연구는 20% 내외로 선발하는 연구 분야 쿼터제를 운영한다.

AI 기반 기술연구는 AI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시스템, 데이터, 딥러닝 등을 말한다. AI 응용기술 연구는 AI 기술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이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 중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반대학원 이공계 전일제 석사(석박통합 포함) 신

입생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 절차는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서류 합격자(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거친다. 이후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6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서울시의 AI 경쟁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이라며 "수요에 따라 향후 장학생 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킨텍스, 말레이시아 'PWCC' 운영권 수주

(페낭 워터프론트 컨벤션센터)

최초 5년 운영... 추가 5년 연장 가능
"동남아 시장 진출의 거점 될 것"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욱)가 말레이시아 페낭에 건립 중인 '페낭 워터프론트 컨벤션센터(Penang Waterfront Convention Centre, PWCC)'의 운영권을 수주하고, 지난 14일 공식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킨텍스는 최초 5년간 PWCC 운영을 맡게 되며, 평가를 통해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한 총 10년간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PWCC는 실내 전시홀 약 7300㎡와 2000㎡ 규모의 회의실 19개를 포함해 총 3만 1000㎡에 달하는 복합 공간으로,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시·회의 공간 외에도 쇼룸

몰, 5성급·4성급 호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킨텍스는 이번 수주 배경으로 자사의 글로벌 운영 실적과 경쟁력을 꼽았다. 실제 PWCC의 발주처는 킨텍스가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장 및 운영 중인 야쇼부미(Yashobhoomi)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킨텍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욱 대표이사는 "인도의 야쇼부미가 서남아 진출의 교두보였다면, 이번 페낭 PWCC는 동남아 시장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운영권 확보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에게도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편의점 간식, 당·나트륨 과다 주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영양성분 조사
에너지음료, 1캔 당 권고량 70% 섭취

어린이와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즐겨 먹는 간식과 음료 한 세트가 하루 권고 당류 및 나트륨 섭취량을 넘어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다 소비식품(음료, 간식 및 식사대용 식품

91건)의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음료류에 들어 있는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제로 음료 제외)은 22g으로 WHO(세계보건기구) 1일 당류 권고섭취량인 50g의 44%에 달했다. 특히 탄산음료 1캔의 당류 평균 함량은 각설탕 11개 분량에 버금가는 32g으로 음료 제품 중 제일 높았다.

음료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탄산음료 32g, 가공유(초코우유

21g, 액상커피(커피우유 등) 21g 순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중 에너지음료는 1캔당 당류 평균 함량이 35g으로, 음료 1캔 섭취만으로도 WHO 당류 권고섭취량의 70%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당류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캔디류 2건, 빵류 1건, 초콜릿가공품 1건 등 4개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제품들은 당류 표시량 대비 실제 당류 함량이 169~593%로, 허용오차(120% 미만) 기준을 초과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8 | 해질 / 19:07

4월 15일 (화)
음력 : 3월 18일

수도권 날씨
4 ~ 16°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0/16, 동두천 1/17, 가평 0/17, 파주 0/16, 서울 4/16, 양평 2/16, 인천 5/13, 수원 4/14, 용인 4/14, 평택 2/14, 백령도 6/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저커버그, 인스타그램 매각 위기?... 반독점 소송 재판 시작 /사진 뉴시스

▲ 3월 중국 수출 12.4% ↑... "트럼프 관세폭탄 전 밀어내기"

▲ 美무역대표 "美에 반도체 '전체 공급망' 유치 원해"

▲ 중국 매체 "미국 무차별 관세 대응... 中, 더 많은 국가와 연대"

▲ 日, 대미 협상 앞두고 '비관세 장벽' 정비... 자동차·농산물에 초점

▲ 애플·HP·델, 중국 내륙서 제조 PC 대미 수출 중단